

“한국 사장님, ‘임금 많이 주면 회사망한다’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인터뷰

일본 MK택시 유봉식 회장

“성실하게 일하고 근검절약하는 기업이 늘어나 노동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기업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 MK택시 유봉식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의식개혁이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바른경제 동인회를 비롯 인천 서울 등지 기업의 초청으로 강연차 고국을 찾아 온 제일 기업가 유봉식 회장은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땀 흘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업계의 사장들이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기사의 능력개발에 관심을 안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유회장은 “노동자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필요없으면 갈아치우면 된다거나 임금을 많이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기업인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임금은 고능률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많은 기업인들에게 기업의 경영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하고 있다. 기업은 사장이나 경영진은 물론 노동자도 주인이므로 기업의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공개해 그들이 기업주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유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20년 넘게 새벽 5시가 되면 기사들에게 차를 끌어 대접하는 일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고 했다. 유회장은 기사들과 답소를 나누는 이 시간도 교육시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유회장이 이끄는 이 기업이 도쿄 시내 택시업계 중 가장 믿을 만하고 친절환 회사로 꼽히는 데는 시민에 대해 철저하게 봉사하는 서비스 정신때문이다. 유회장은 기사들에게 승차거부를 못하도록 하고 장애자와 임신부 우선 태우기 운동을 벌였으며 승객에게 항상 친절하게 인사하도록 교육했다. 나아가 교토시의 택시요금 인하를 주장, 법정투쟁에 승소해 교통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이사회 기사들 모두가 적십자 긴급요원 자격증을 취득, 응급환자도 수송할 수 있게 되자 MK택시회사에 보내는 시민들의 지지는 날로 높아갔다는 것이다.

유회장은 34년전 10대의 택시와 24명의 기사들로 미나미 택시회사를 차렸다. 이후 가쓰라택시회사를 인수해 이 두 회사의 첫머릿글자를 따서 MK로 명명했다.

그는 또 기업은 기업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에 이윤을 환원해야하며 국민들은 근검 절약정신을 실천할

때 민주적인 시민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사업초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는데 그이유는 기사들의 잦은 결근, 지각, 조퇴때문에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기사들에게 수도없이 사정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이들의 근무태도는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유회장은 기사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원인을 찾아냈다. 기사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낮은 임금이 근로의욕을 갈수록 떨어뜨린다고 판단한 유회장은 1사원 1주택정책을 폈다고 한다. 또 당시 7만엔 정도의 택시기사 임금을 두배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신생기업으로서 무모할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유회장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근로의욕은 노동자의 복지수준과 비례한다는 유회장 나름대로의 철학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유회장은 자신이 기사들 생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기사들의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지금의 MK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십년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유회장은 자신의 성공사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자 몇몇 기업인들에게서 한



국에 진출해 보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그같은 사업구상은 아직 없다. 그러나 한국내 택시업계의 반발이 대단히 커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그는 지난 92년 한국내에 국민 의식개혁추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MK 기업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회장은 경남 김해가 고향이며 16세 때인 43년 일본으로 건너가 리스메이강 법학부를 중퇴하고 (주)나가이 석유회사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사업가의 길을 걸어왔다. 그가 택시업계에 첫발을 디딘 것은 60년 미나미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터인데 3년뒤 사세확장으로 가쓰라 회사를 인수해 MK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그의 가족은 부인 후미코씨와 3남1녀가 있다. /이이경 기자